

『針灸資生經』에 기재된 頭面部 병증 치료경혈의 특성에 대한 고찰

¹대구한의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사학교실 박사과정, ²대구한의대학교 한의과대학 침구경혈학교실 교수,
³원광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⁴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학교실 교수,
⁵대구한의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사학교실 교수
금유정¹ · 이봉효² · 여인금³ · 엄동명⁴ · 송지철^{5*}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Acupoints that Treat Disorders of the Head and Face in the *Zhenjiuzishengjing*

KEUM Yujeong¹ · LEE Bonghyo² · YEO Inkeum³ · EOM Dongmyung⁴ · SONG Jichung^{5*}

¹Graduate Student at Dept. of Medical Classics and History, College of Korean Medicine, Daegu Haany University

²Professor at Dept. of Acupuncture, Moxibustion, and Acupoint, College of Korean Medicine, Daegu Haany University

³Graduate Student at Professional Graduate School of Korean Medicine, Wonkwang University

⁴Professor at Dept. of Medical Classics, College of Korean Medicine, Wonkwang University

⁵Professor at Dept. of Medical Classics and History, College of Korean Medicine, Daegu Haany University

Objectives : To organize the acupoints used to treat disorders of the head and face in the *Zhenjiuzishengjing*, and examine their characteristics in application.

Methods : 1. The head and face area was divided into 8 parts according to the textbook of meridians and acupoints. Channels belonging to each part were marked. 2. Disorders as mentioned in the *Zhenjiuzishengjing* were categorized into 8 groups, accordingly. 3. Acupoints used to treat each disorder were organized according to the channels each belonged to. 4. The points were divided according to their proximity, and their application frequency was organized. 5. Based on the organized contents, the characteristics of using proximal and distal points, together with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the channel belonging to the afflicted area and the points locations were examined.

Results : In treating disorders in the head and face area, various distal points along with proximal points were suggested in the *Zhenjiuzishengjing*. In some cases, points belonging to a channel that was irrelevant to the afflicted area were used widely; for proximal points, the Governor/Conception/Triple Energizer/Gallbladder channels were used. For distal points, channels that were related to the Five Zhang were used.

Conclusions : Based on the contents of the *Zhenjiuzishengjing*, the following could be concluded: 1. When treating disorders of the head and face caused by heat, distal points were mostly used. 2. In cases where points which are not part of channels that pass the head or face were used, Zhang disfunction was likely behind such points selection.

Key words : disorders of the head and face, *Zhenjiuzishengjing*, distal points selection, channel flow

* Corresponding Author : Song Jichung

1 Haanydae Rd, Kyungsan, Kyungbuk

Tel: +82-53-819-1826 Fax: +82-53-819-1850, E-mail: prunedias@gmail.com

저자들은 본 논문의 내용과 관련하여 그 어떠한 이해상충도 없습니다.

Received(July 22, 2021), Revised(August 13, 2021), Accepted(August 16, 2021)

Copyright © The Society of Korean Medical Classics. All rights reserved.

Ⓞ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I. 서론

최근 한방의료의 치료 범위가 좁아지고 있는데 침구치료의 경우 탕약치료와 함께 대표적인 한방 치료술이지만, 현재 임상에서 침구치료는 주로 근골격계 병증에만 사용되고 있다. 근골격계 병증이라고 하더라도 經氣의 정체부터 六氣나 장부 기능 등 다양한 원인에 따라 병증의 치료원칙도 달라져야 한다. 하지만 임상에서 근골격계 병증에 대한 치료는 아시혈 위주의 치료가 다수를 이루고 있어서 침구치료의 응용범위가 축소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침구치료는 한방치료의 대표적인 술기이지만 최근에는 근골격계 병증의 아시혈 위주로 시행되고 있어 침구치료의 범위를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문헌을 기반으로 다양한 침구치료 방법을 밝혀 내는 것이 좋은 해결방법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문헌에 기재된 다양한 병증에 대한 침구치료 방법은 근거기반 한의학을 정립하는데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며, 축소되어 있는 침구치료 방법에 다양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저자는 『鍼灸資生經』(이하 『자생경』이라 함)의 병증별 침구치료 방법에 주목하였다. 『자생경』은 1180~1196년 사이에 南宋의 王執中이 저술한 침구전문서이다¹⁾. 전체 7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권1에서는 경맥별, 부위별 경혈을 설명하였고, 권2에서는 침구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수록하였으며, 권3부터 권7까지는 각 병증별 수혈주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권3~7권까지의 내용은 『銅人經』, 『太平聖惠方』, 『千金要方』을 인용하여 병증에 따라 분류해 놓았다. 『자생경』은 송대까지 밝혀진 침구법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하였고, 동신촌법에 대한 취혈법, 각 병증에 대한 전대의 경험과 저자의 경험이 서로 결합되어 침구발전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받고 있다²⁾. 뿐만 아니라 이후 간행된 침구서 및 의학서적에도 자주 인용될 정도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기에 연구대상 서적으로 선정하기에 적합

하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자생경』에 수록된 전체 병증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고 두면부 병증에 대해서만 연구를 진행하였다. 두면부 병증은 근골격계 병증처럼 체표에 드러나는 병증이지만 五臟이 五竅로 開竅하고 있어 臟腑와 연관성이 많기 때문에 병증에 대한 침구치료의 다양한 사용례를 보여줄 수 있다고 판단된다. 연구는 『四庫全書』 수록 『鍼灸資生經』³⁾을 저본으로 하였다.

『자생경』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정상선⁴⁾, 오준호⁵⁾, 이장천⁶⁾ 등의 연구가 있었다. 『자생경』 전체 내용을 바탕으로 문헌 비교, 禁臠穴 등 특정 주제에 대한 연구들은 있었으나 특정 병증의 수혈사용에 대한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생경』의 두면부 병증에 대한 치료혈위를 정리하여 그 특징을 밝히고자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먼저 경혈학 교과서에 기재된 두면부 각 부위별 소속 경락을 제시하고, 두면부를 頭部, 面部, 目部, 鼻部, 耳部, 口脣部, 舌部, 齒部 등 8개 부위로 구분하여 병증을 분류였다. 각 병증별 치료 혈위를 소속 경맥별로 정리한 다음 소속 경맥별로 정리된 혈위는 다시 근위혈과 원위혈로 구분하였다. 두면부에 위치한 혈위는 근위혈로, 두면부 외에 위치한 혈위는 모두 원위혈로 간주하였다. 최종적으로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근위혈과 원위혈 활용 특징에 대해, 그리고 병증부위에 소속된 경락과 혈위의 상관성에 대해 고찰하였다.

II. 본론

『자생경』의 두면부 병증을 頭部, 面部, 目部, 鼻部, 耳部, 口脣部, 舌部, 齒部 등 8개 군으로 분류하

1) 柳濟浩. 『鍼灸資生經』文獻研究. 山東. 山東中醫藥大學 國際教育學院 박사학위논문. 2017. pp.22-23.

2) 이재동, 김남일. 중국 침뜸의학의 역사. 서울. 집문당. 1997. pp.242-244.

3) 金信根 編. 中國醫學大系 10, 鍼灸資生經. 서울. 麗江出版社. 1995.

4) 정상선, 엄동명. 『鍼灸資生經』과 『十四經發揮』의 수혈 배열 비교연구. 한국의사학회지. 2019. 32(1). pp.43-61.

5) 오준호. 계층적 군집분석(hierarchical clustering)을 통한 침구자생경(鍼灸資生經) 경혈 선택 요인 분석. 한의학연구소 논문집. 2014. 23(1). pp.115-124.

6) 이장천, 서병관, 권선오, 박희준, 함대현, 이혜정, 김승태. 『銅人臉穴鍼灸圖經』과 『鍼灸資生經』에 수록된 침구금기혈 연구. Korean Journal of Acupuncture. 2012. 29(1). pp.1-15.

고, 각 병증별 치료 혈위를 소속 경맥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頭

유주상 頭部와 관련이 있는 正經은 足陽明胃經, 足太陽膀胱經, 足少陽膽經, 足厥陰肝經, 督脈이 있고, 經別은 手少陽經別이 있고, 經筋은 手陽明經筋, 手少陽經筋, 足少陽經筋이 있다⁷⁾.

『자생경』에는 頭部 병증에 대해 頭風, 頭痛, 腦痛, 頭旋, 頭腫, 頂腫痛, 傷寒頭痛 등으로 구분하여 서술하였는데, 세부 병증별 언급된 경혈의 횟수와 그 소속경맥을 원위와 근위를 기준으로 정리하였다.

1) 근위혈

세부병증별로 사용된 근위혈의 소속경맥을 살펴보면 다음(표 1)과 같다.

표 1. 頭部 병증에 사용된 근위혈과 소속경맥

	독	임	폐	대장	위	비	심	소장	방광	신	심포	삼초	담	간
頭風	12							7			4	3		26
頭痛	12			2				6			1	14		35
腦痛	2							2				4		8
頭旋								2				1		3
頭腫	5											2		7
頂腫痛	1							1						2
傷寒頭痛	1											3		4
합계	33			2				18			5	27		85

頭部 병증에 근위혈이 총 85회 언급되었고, 언급된 근위혈의 소속경맥은 督脈(33회), 膽經(27회), 膀胱經(18회), 三焦經(5회), 胃經(2회)이었다. 85회 모두 유주상 頭部와 관련이 있다.

2) 원위혈

세부 병증별로 언급된 원위혈의 소속경맥을 살펴보면 다음(표 2)과 같다.

표 2. 頭部 병증에 사용된 원위혈과 소속경맥

	독	임	폐	대장	위	비	심	소장	방광	신	심포	삼초	담	간	
頭風		1		2			1	1	4			1		10	
頭痛	2		3	2	4	1	4	4	10		3	2	2	1	38
腦痛				1			1							2	
頭旋									1					1	
頭腫						1								1	
頂腫痛														0	
傷寒頭痛		2	2	2			1	2	1	1	1	2		14	
합계	2	3	5	7	4	2	7	7	16	1	4	5	2	1	66

頭部 병증에 원위혈이 총 66회 언급되었고, 언급된 원위혈의 소속경맥은 膀胱經(16회), 大腸經(7회), 心經(7회), 小腸經(7회), 肺經(5회), 三焦經(5회), 胃經(4회), 心包經(4회), 任脈(3회), 督脈(2회), 脾經(2회), 膽經(2회), 腎經(1회), 肝經(1회)이었다. 66회 가운데 37회는 膀胱經, 大腸經, 三焦經, 胃經, 督脈, 膽經, 肝經에 소속된 經穴로 유주상 頭部와 관련이 있다. 나머지 29회는 心經, 小腸經, 肺經, 心包經, 任脈, 脾經, 腎經에 소속된 經穴로 유주상 頭部와 관련이 없다.

2. 面

유주상 面部와 관련이 있는 正經은 手陽明大腸經, 足陽明胃經, 手太陽小腸經, 足太陽膀胱經, 手少陽三焦經, 足少陽膽經, 足厥陰肝經, 督脈, 任脈이 있고, 經別은 足陽明經別, 手少陰經別, 足少陽經別이 있고, 經筋에는 手陽明經筋, 足陽明經筋, 手太陽經筋, 足太陽經筋, 手少陽經筋, 足少陽經筋이 있고, 絡脈은 手陽明絡脈이 있다⁸⁾.

『자생경』에는 面部 병증에 대해 面腫, 面痛 등으로 구분하여 서술하였는데, 세부 병증별 언급된 경혈의 횟수와 그 소속경맥을 원위와 근위를 기준으로 정리하였다.

7) 전국한외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 경락경혈학 교재편찬위원회 저. 大學經絡經穴學總論. 대전. (도)종려나무. 2015. pp.388-390.

8) 전국한외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 경락경혈학 교재편찬위원회 저. 大學經絡經穴學總論. 대전. (도)종려나무. 2015. pp.388-390.

1) 근위혈

세부 병증별로 언급된 근위혈의 소속경맥을 살펴 보면 다음(표 3)과 같다.

표 3. 面部 병증에 사용된 근위혈과 소속경맥

	독	임	폐	대장	위	비	심	소장	방광	신	심포	삼초	담	간	
面	面腫	1	1	1	3							2	4		25
	面痛	2						1	2				2		7
합계	1	1	1	3			1	2				2	6		32

面部 병증에 근위혈이 총 32회 언급되었고, 언급된 근위혈의 소속경맥은 督脈(16회), 膽經(6회), 胃經(3회), 膀胱經(2회), 三焦經(2회), 任脈(1회), 大腸經(1회), 小腸經(1회)이었다. 32회 모두 유주상面部와 관련이 있다.

2) 원위혈

세부 병증별로 언급된 원위혈의 소속경맥을 살펴 보면 다음(표 4)과 같다.

표 4. 面部 병증에 사용된 원위혈과 소속경맥

	독	임	폐	대장	위	비	심	소장	방광	신	심포	삼초	담	간	
面	面腫		1	2	9	1						2			15
	面痛	2		1				2		2	4		2		13
합계	2	1	2	10	1			2		2	4	2	2		28

面部 병증에 원위혈이 총 28회 언급되었고, 언급된 원위혈의 소속경맥은 胃經(10회), 三焦經(4회), 任脈(2회), 大腸經(2회), 膀胱經(2회), 心包經(2회), 膽經(2회), 肝經(2회), 肺經(1회), 脾經(1회)이었다. 28회 가운데 24회는 胃經, 三焦經, 任脈, 大腸經, 膀胱經, 膽經, 肝經에 소속된 經穴로 유주상面部와 관련이 있다. 나머지 4회는 心包經, 脾經, 肺經에 소속된 經穴로 유주상面部와 관련이 없다.

3. 目

유주상 目部와 관련이 있는 正經은 手少陰心經, 手太陽小腸經, 足太陽膀胱經, 手少陽三焦經, 足少陽

膽經, 足厥陰肝經, 督脈, 任脈이 있고, 經別은 足陽明經別, 手少陰經別, 足少陽經別이 있고, 經筋에는 足陽明經筋, 手太陽經筋, 足太陽經筋, 手少陽經筋, 足少陽經筋이 있고, 絡脈에는 手少陰絡脈이 있다⁹⁾.

『자생경』에는 目部 병증에 대해 目痛, 目上視, 目淚出, 目眩, 目不明, 目翳膜, 目赤, 青盲 등으로 구분하여 서술하였는데, 세부 병증별 언급된 경혈의 횟수와 그 소속경맥을 원위와 근위를 기준으로 정리하였다.

1) 근위혈

세부 병증별로 언급된 근위혈의 소속경맥을 살펴 보면 다음(표 5)과 같다.

표 5. 目部 병증에 사용된 근위혈과 소속경맥

	독	임	폐	대장	위	비	심	소장	방광	신	심포	삼초	담	간	
目	目痛	8			2				5			1	5		21
	目上視	4			2			2				1	3		12
	目淚出	4			4			3				1	3		15
	目眩	11	1		3			4				1	11		31
	目不明	4			2			8				3	8		25
	目翳膜	4			4			3				1	6		18
	目赤	2						2					6		10
	青盲				1			5					3		9
	합계	37	1		18			32				8	45		141

目部 병증에 근위혈이 총 141회 언급되었고, 언급된 근위혈의 소속경맥은 膽經(45회), 督脈(37회), 膀胱經(32회), 胃經(18회), 三焦經(8회), 任脈(1회)이었다. 149회 모두 유주상 目部와 관련이 있다.

2) 원위혈

세부 병증별로 언급된 원위혈의 소속경맥을 살펴 보면 다음(표 6)과 같다.

9) 전국한외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 경락경혈학 교재편찬위원회 저. 大學經絡經穴學總論. 대전. (도)종려나무. 2015. pp.388-390.

표 6. 目部 병증에 사용된 원위혈과 소속경맥

	독	임	폐	대장	위	비	심	소장	방광	신	심포	삼초	담	간	
目痛	1			3			1	5	6	2	1		1	3	23
目上視	2			1	1			1	3				1	1	10
目淚出			1					5	3			1	1	3	14
目眩	1		2		2	1	2	12	2		1		1	24	
目不明	1		1	2	1			3	13	3	1			1	26
目翳膜			1	3	2			5	8			2	3		24
目赤		1	2	2				1	8	1	4	2	1	3	25
青盲			1	3					1				1	1	7
합계	5	1	8	14	3	3	2	22	54	8	6	6	8	13	153

目部 병증에 원위혈이 총 153회 언급되었고, 언급된 원위혈의 소속경맥은 膀胱經(54회)¹⁰⁾, 小腸經(22회), 大腸經(14회), 肝經(13회), 肺經(8회), 腎經(8회), 膽經(8회), 心包經(6회), 三焦經(6회), 督脈(5회), 胃經(3회), 脾經(3회), 心經(2회), 任脈(1회)이었다. 153회 중 114회는 膀胱經, 小腸經, 肝經, 膽經, 三焦經, 督脈, 脾經, 心經, 任脈에 소속된 經穴로 유주상 目部와 관련이 있다. 나머지 39회는 大腸經, 腎經, 肺經, 心包經, 脾經에 소속된 經穴로 유주상 目部와 관련이 없다.

4. 耳

유주상 耳部와 관련이 있는 正經은 足陽明胃經, 手太陽小腸經, 足太陽膀胱經, 手少陽三焦經, 足少陽膽經이 있고, 經別은 手厥陰經別이 있고, 經筋에는 足陽明經筋, 手太陽經筋, 手少陽經筋, 足少陽經筋이 있고, 絡脈은 手陽明絡脈이 있다¹¹⁾.

『자생경』에는 耳部 병증에 대해 耳鳴, 耳痛, 耳聾, 停耳 등으로 구분하여 서술하였는데, 세부 병증별 언급된 경혈의 횟수와 그 소속경맥을 원위와 근위를 기준으로 정리하였다.

1) 근위혈

10) 방광경 54회 가운데 22회는 배수혈이다.
 11) 전국한의학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 경락경혈학 교재편찬위원회 저. 大學經絡經穴學總論. 대전. (도)종려나무. 2015. pp.388-390.

세부 병증별로 언급된 근위혈의 소속경맥을 살펴보면 다음(표 7)과 같다.

표 7. 耳部 병증에 사용된 근위혈과 소속경맥

	독	임	폐	대장	위	비	심	소장	방광	신	심포	삼초	담	간	
耳鳴	2				2			4	2			6	8		24
耳痛	1				2			1				4	3		11
耳聾	1							2	1			8	8		20
停耳					1			1				1	1		4
합계	4				5			8	3			19	20		59

耳部 병증에 근위혈이 총 59회 언급되었고, 언급된 근위혈의 소속경맥은 膽經(20회), 三焦經(19회), 小腸經(8회), 胃經(5회), 督脈(4회), 膀胱經(3회)이었다. 59회 가운데 55회는 膽經, 三焦經, 小腸經, 胃經, 膀胱經에 소속된 經穴로 유주상 耳部와 관련이 있다. 나머지 4회는 督脈에 소속된 經穴로 주로 耳鳴, 耳痛, 耳聾에 언급되었으나 유주상 耳部와 관련이 없다.

2) 원위혈

세부 병증별로 언급된 원위혈의 소속경맥을 살펴보면 다음(표 8)과 같다.

표 8. 耳部 병증에 사용된 원위혈과 소속경맥

	독	임	폐	대장	위	비	심	소장	방광	신	심포	삼초	담	간	
耳鳴				6				8			1	4	2		21
耳痛				2								3			5
耳聾				2				3	2			10	2		19
停耳															0
합계				10				11	2		1	17	4		45

耳部 병증에 원위혈이 총 45회 언급되었고, 언급된 원위혈의 소속경맥은 三焦經(17회), 小腸經(11회), 大腸經(10회), 膽經(4회), 膀胱經(2회), 心包經(1회)이었다. 45회 모두 유주상 耳部와 관련이 있다.

5. 鼻

유주상 鼻部와 관련이 있는 正經은 手陽明大腸經,

足陽明胃經, 手太陽小腸經, 督脈이 있고, 經別은 足陽明經別이 있고, 經筋은 足陽明經筋, 足太陽經筋이 있다¹²⁾.

『자생경』에는 鼻部 病증에 대해 鼻塞不利, 鼻有息肉, 鼻涕出, 鼻痛, 鼻衄 등으로 구분하여 서술하였는데, 세부 병증별 언급된 경혈의 횟수와 그 소속경맥을 원위와 근위를 기준으로 정리하였다.

1) 근위혈

세부 병증별로 언급된 근위혈의 소속경맥을 살펴보면 다음(표 9)과 같다.

표 9. 鼻部 病증에 사용된 근위혈과 소속경맥

	독	임	폐	대장	위	비	심	소장	방광	신	심포	삼초	담	간
鼻	鼻塞不利	15	1	3				7			1	5		32
	鼻有息肉	3		2	1			1				1		8
	鼻涕出	6		3				5			1	1		16
	鼻痛	1			1								2	4
	鼻衄	8	1	3	1			3			1	3		20
합계	33	2	11	3			16			3	12		80	

鼻部 病증에 근위혈이 총 80회 언급되었고, 언급된 근위혈의 소속경맥은 督脈(33회), 膀胱經(16회), 膽經(12회), 大腸經(11회), 胃經(3회), 三焦經(3회), 任脈(2회)이었다. 80회 가운데 63회는 督脈, 膀胱經, 大腸經, 胃經에 소속된 經穴로 유주상 鼻部와 관련이 있다. 나머지 17회는 膽經, 三焦經, 任脈에 소속된 經穴로 유주상 鼻部와 관련이 없다.

2) 원위혈

세부 병증별로 언급된 원위혈의 소속경맥을 살펴보면 다음(표 10)과 같다.

표 10. 鼻部 病증에 사용된 원위혈과 소속경맥

	독	임	폐	대장	위	비	심	소장	방광	신	심포	삼초	담	간
鼻	鼻塞不利	1			2			2	2	1				8
	鼻有息肉													0
	鼻涕出			2				1	9	1				13
	鼻痛								1	1			1	3
	鼻衄	1	1	4	1	4	1	3	16	2	2		2	37
합계	2	1	6	3	4	1	6	28	5	2		1	2	61

鼻部 病증에 원위혈이 총 61회 언급되었고, 언급된 원위혈의 소속경맥은 膀胱經(28회), 大腸經(6회), 小腸經(6회), 腎經(5회), 脾經(4회), 胃經(3회), 任脈(2회), 心包經(2회), 肝經(2회), 肺經(1회), 心經(1회), 膽經(1회)이었다. 61회 가운데 43회는 膀胱經, 大腸經, 小腸經, 胃經에 소속된 經穴로 유주상 鼻部와 관련이 있다. 나머지 18회는 脾經, 肺經, 任脈, 心包經, 肝經, 心經, 膽經에 소속된 經穴로 유주상 鼻部와 관련이 없다.

6. 口脣

유주상 口脣部와 관련이 있는 正經은 手陽明大腸經, 足陽明胃經, 足厥陰肝經, 督脈, 任脈이 있고, 經別은 足陽明經別이 있고, 經筋은 足陽明經筋이 있다¹³⁾.

『자생경』에는 口脣部 病증에 대해 口眼喎, 口瘡, 口緩, 口舌乾苦, 唇頰腫痛, 齒噤(口噤) 등으로 구분하여 서술하였는데, 세부 병증별 언급된 경혈의 횟수와 그 소속경맥을 원위와 근위를 기준으로 정리하였다.

1) 근위혈

세부 병증별로 언급된 근위혈의 소속경맥을 살펴보면 다음(표 11)과 같다.

12) 전국한외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 경락경혈학 교재편찬위원회 저. 大學經絡經穴學總論. 대전. (도)종려나무. 2015. pp.388-390.

13) 전국한외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 경락경혈학 교재편찬위원회 저. 大學經絡經穴學總論. 대전. (도)종려나무. 2015. pp.388-390.

표 11. 口脣部 병증에 사용된 근위혈과 소속경맥

	독	임	폐	대장	위	비	심	소장	방광	신	심포	삼초	담	간
口眼喎	4	1		1	12			2	2			2	5	29
口瘡啞	7	4		2	6			3				2	1	25
口緩	3				4							3	2	12
口舌乾苦	1													1
脣頰腫痛	3			1	1								2	7
齒噤	2	3		2	4			2				4	3	20
합계	20	8		6	27			7	2			11	13	94

口脣部 병증에 원위혈이 총 99회 언급되었고, 언급된 원위혈의 소속경맥은 大腸經(16회), 膀胱經(11회), 胃經(10회), 肺經(9회), 心經(9회), 三焦經(8회), 心包經(7회), 小腸經(6회), 膽經(6회), 任脈(5회), 肝經(5회), 督脈(3회), 腎經(3회), 脾經(1회)이었다. 99회 가운데 39회는 大腸經, 胃經, 任脈, 肝經, 督脈에 소속된 經穴로 유주상 口脣部와 관련이 있다. 나머지 60회는 膀胱經, 肺經, 心經, 三焦經, 心包經, 小腸經, 膽經, 腎經, 脾經에 소속된 經穴로 유주상 口脣部와 관련이 없다.

2) 원위혈

세부병증별로 사용된 원위혈의 소속경맥을 살펴보면 다음(표 12)과 같다.

표 12. 口脣部 병증에 사용된 원위혈과 소속경맥

	독	임	폐	대장	위	비	심	소장	방광	신	심포	삼초	담	간
口眼喎			3	3	2				1					1
口瘡啞	1	3	2			6		1	3	1	3	1		21
口緩			2	1	2	1	1		3					10
口舌乾苦			1	5	1		2	3	5		6	1	2	3
脣頰腫痛				3	1			1	1					1
齒噤	3	4		2	4			2				4	3	22
합계	3	5	9	16	10	1	9	6	11	3	7	8	6	99

口脣部 병증에 원위혈이 총 99회 언급되었고, 언급된 원위혈의 소속경맥은 大腸經(16회), 膀胱經(11회), 胃經(10회), 肺經(9회), 心經(9회), 三焦經(8회), 心包經(7회), 小腸經(6회), 膽經(6회), 任脈(5회), 肝

經(5회), 督脈(3회), 腎經(3회), 脾經(1회)이었다. 99회 가운데 39회는 大腸經, 胃經, 任脈, 肝經, 督脈에 소속된 經穴로 유주상 口脣部와 관련이 있다. 나머지 60회는 膀胱經, 肺經, 心經, 三焦經, 心包經, 小腸經, 膽經, 腎經, 脾經에 소속된 經穴로 유주상 口脣部와 관련이 없다.

7. 舌

유주상 舌部와 관련이 있는 正經은 足太陰脾經, 足少陰腎經이 있고, 經別은 足太陰經別, 足少陰經別이 있고, 經筋에는 足太陽經筋, 手少陽經筋이 있고, 絡脈에는 手少陰絡脈이 있다¹⁴⁾.

『자생경』에는 舌部 병증에 대해 中風不語, 舌強 등으로 구분하여 서술하였는데, 세부 병증별 언급된 경혈의 횟수와 그 소속경맥을 원위와 근위를 기준으로 정리하였다.

1) 근위혈

세부 병증별로 언급된 근위혈의 소속경맥을 살펴보면 다음(표 13)과 같다.

표 13. 舌部 병증에 사용된 근위혈과 소속경맥

	독	임	폐	대장	위	비	심	소장	방광	신	심포	삼초	담	간
中風不語					1									1
舌強	2	2			1									5
합계	2	2			2									6

舌部 병증에 근위혈이 총 6회 언급되었고, 언급된 근위혈의 소속경맥은 督脈, 任脈, 胃經이 각 2회씩이었다. 6회 모두 유주상 舌部와 관련이 없다.

2) 원위혈

세부 병증별로 언급된 원위혈의 소속경맥을 살펴보면 다음(표 14)과 같다.

14) 진국한외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 경락경혈학 교재편찬위원회 저. 大學經絡經穴學總論. 대전. (도)종려나무. 2015. pp.388-390.

표 14. 舌部 병증에 사용된 원위혈과 소속경맥

	독	임	폐	대장	위	비	심	소장	방광	신	심포	삼초	담	간
中風 不語 舌強								1			1		1	
합계								1			1		1	

舌部 병증에 원위혈이 총 3회 언급되었고, 언급된 원위혈의 소속경맥은 小腸經, 心包經, 膽經이 각 1회씩이었다. 3회 모두 유주상 舌部와 관련이 없다.

8. 齒

유주상 齒部와 관련이 있는 正經은 手陽明大腸經, 足陽明胃經이 있고, 經筋은 手少陽經筋이 있고, 絡脈은 手陽明絡脈이 있다¹⁵⁾.

『자생경』에는 齒部 병증에 대해 齒齲, 口齒疔瘡, 牙疼 등으로 구분하여 서술하였는데, 세부 병증별 언급된 경혈의 횟수와 그 소속경맥을 원위와 근위를 기준으로 정리하였다.

1) 근위혈

세부 병증별로 언급된 근위혈의 소속경맥을 살펴보면 다음(표 15)과 같다.

표 15. 齒部 병증에 사용된 근위혈과 소속경맥

	독	임	폐	대장	위	비	심	소장	방광	신	심포	삼초	담	간
齒齲	1			3							5	7		16
口齒疔瘡	1	2		2							3	4		12
牙疼	1			3		1					2	7		14
합계	3	2		8		1					10	18		42

齒部 병증에 근위혈이 총 42회 언급되었고, 언급된 근위혈의 소속경맥은 膽經(18회), 三焦經(10회), 胃經(8회), 督脈(3회), 任脈(2회), 小腸經(1회)이었다. 42회 가운데 18회는 三焦經과 胃經에 소속된 經穴로 유주상 齒部와 관련이 있다. 나머지 24회는 膽

15) 전국한의학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 경락경혈학 교재편찬위원회 저. 大學經絡經穴學總論. 대전. (도)종려나무. 2015. pp.388-390.

經, 督脈, 任脈, 小腸經에 소속된 경혈로 유주상 齒部와 관련이 없다.

2) 원위혈

세부 병증별로 언급된 원위혈의 소속경맥을 살펴보면 다음(표 16)과 같다.

표 16. 齒部 병증에 사용된 원위혈과 소속경맥

	독	임	폐	대장	위	비	심	소장	방광	신	심포	삼초	담	간
齒齲				7	6		1	2		1		3		20
口齒疔瘡														0
牙疼				6				3	1			2		12
합계				13	6		1	5	1	1		5		32

齒部 병증에 원위혈이 총 32회 언급되었고, 언급된 원위혈의 소속경맥은 大腸經(13회), 胃經(6회), 小腸經(5회), 三焦經(5회), 心經(1회), 膀胱經(1회), 腎經(1회)이었다. 30회 가운데 24회는 大腸經, 胃經, 三焦經에 소속된 經穴로 유주상 齒部와 관련이 있다. 나머지 8회는 小腸經, 心經, 膀胱經, 腎經에 소속된 經穴로 유주상 齒部와 관련이 없다.

III. 고찰

『자생경』의 두면부 병증의 치료혈위를 소속경맥별로 분류하고, 근위혈과 원위혈로 구분하여 정리한 후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고찰할 수 있었다.

1. 근위혈과 원위혈의 특징

1) 근위혈과 원위혈의 언급 횟수 비교

『자생경』 두면부 병증에 대해 언급된 근위혈과 원위혈의 총 언급 횟수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표 17)과 같다.

표 17. 근위혈, 원위혈 총 사용 횟수

	근위혈 사용횟수	원위혈 사용횟수
頭	85	66
面	32	28
目	141	153
耳	59	45
鼻	80	61
口脣	94	99
舌	6	3
齒	42	32
합계	539	487

頭部, 面部, 耳部, 鼻部, 舌部, 齒部 병증에서는 근위혈의 총 언급 횟수가 더 많았고 目部, 口脣部 병증에서는 원위혈의 총 언급 횟수가 더 많았다. 하지만 모든 병증군에서 그 횟수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두면부 병증 전체로 놓고 보면 근위혈 언급이 52.5%, 원위혈 언급이 47.5%로 근위혈의 언급 횟수가 조금 많기는 하나 거의 대등하게 언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원위혈 취혈의 특징

『자생경』 두면부 병증에서 근위혈은 특정 병증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하게 언급되었다. 근위혈은 해당 부위의 병증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선혈로 파악되므로 현재의 아시혈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자생경』 두면부 병증에서 근위혈에 비해 원위혈을 다빈도로 언급한 병증은 다음(표18)과 같다.

표 18. 원위혈 다빈도 사용 병증

		근위혈	원위혈
頭	傷寒頭痛	4	14
面	面痛	7	13
目	目赤	10	25
鼻	鼻衄	20	37
口脣	口舌乾苦	1	29

頭部 병증의 경우는 傷寒頭痛에, 面部 병증의 경우 面痛에, 目部 병증의 경우 目赤에, 鼻部 병증의 경우 鼻衄에, 口脣 병증의 경우 口舌乾燥에 상대적으로 원위혈이 많이 언급되었는데, 주로 열성 병증과 관련성이 있다. 面痛의 경우에도 원위혈을 언급한 경우 『자생경』의 내용을 살펴보면, 額顛熱痛 面赤, 面赤熱, 面黃黑, 面黑 등 열성 병증임을 확인하였다.

2. 유주상 관련이 없는 경락이 언급된 경우

『자생경』의 두면부 병증 치료시 언급된 치료경혈을 살펴보았는데, 대부분 그 병증부위 소속경락의 경혈을 언급하였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다수 있었다.

1) 근위혈

근위혈이 유주상 해당 부위와 관련이 없는 경락을

살펴보면 다음(표 19)과 같다. 표에서 회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두면부 각 부위별 소속 경락을 의미한다.

표 19. 근위취혈시 유주상 관련이 없는 경락의 經穴 사용 횟수

	독	임	폐	대장	위	비	심	소장	방광	신	심포	삼초	담	간
頭														
面														
目														
耳	4													
鼻		2										3	12	
口脣								7	2			11	13	
舌	2	2			2									
齒	3	2						1						18
합계	9	6			2			8	2			14	43	

근위혈의 소속경맥 중 유주상 관련이 없는 경락은 督脈, 任脈, 胃經, 小腸經, 膀胱經, 三焦經, 膽經이다. 유주와 관련이 없는 경락의 총 언급 횟수는 84회이다. 이는 전체 근위혈 언급 횟수의 15.6%에 불과하다. 대체로 督脈, 任脈, 三焦經, 膽經의 혈위를 언급하였는데 두면부 측면에 많은 경혈이 분포하고 있는 膽經, 三焦經과 두면부 정중앙을 지나는 督脈, 任脈의 혈위를 주로 언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원위혈

원위혈시 유주상 해당부위와 관련이 없는 경락을 살펴보면 다음(표 20)과 같다. 표에서 회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두면부 각 부위별 소속 경락을 의미한다.

표 20. 원위취혈시 유주상 관련이 없는 경락의 經穴 사용 횟수

	독	임	폐	대장	위	비	심	소장	방광	신	심포	삼초	담	간
頭		3	5			2	7	7		1	4			
面			1			1					2			
目			8	14		3				8	6			
耳														
鼻		2	1			4	1			5	2		1	2
口脣			9			1	9	6	11	3	7	8	6	
舌								1			1		1	
齒								1	5	1	1			
합계		5	24	14		11	18	19	12	18	22	8	8	2

원위혈의 소속경맥 중 유주상 관련이 없는 경맥

은 任脈, 肺經, 大腸經, 脾經, 心經, 小腸經, 膀胱經, 腎經, 心包經, 三焦經, 膽經, 肝經이다. 유주와 관련이 없는 경락의 총 언급 횟수는 161회이다. 이는 전체 원위혈 언급 횟수의 33.2%에 해당하는데, 특히 肺經, 脾經, 心經, 腎經, 心包經 등 臟과 연결되어 있는 手足陰經의 언급빈도가 높았다.

臟과 연결되어 있는 手足陰經에 소속된 원위혈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표 21)과 같다.

표 21. 臟과 연결되어 있는 手足陰經에 소속된 원위혈

부위/경맥	폐	비	심	신	심포	간
頭	魚際 孔最	公孫 太白	通里 少海 青靈	涌泉	中衝 大陵 天池	
面	中府	公孫			內關 使	
目	魚際 太淵 天府	大都		涌泉 照海 復溜	大陵 內關 勞宮	
耳						
鼻	天府	隱白	陰郄	涌泉 太谿 復溜	中衝 大陵 天池	曲泉
口脣	魚際 太淵 經渠 列缺 孔最 尺澤	商丘	少衝 陰郄 通里	然谷 復溜 陰谷	勞宮 使 曲澤	
舌					中衝	
齒			少海	復溜		

手太陰肺經의 경우 魚際, 太淵, 經渠, 列缺, 孔最, 尺澤, 天府, 中府가 언급되었다. 이 경혈들의 주요 병증을 살펴보면 魚際, 太淵, 經渠, 孔最, 尺澤, 天府는 熱症에 활용하였으며, 口眼喎斜에 언급된 列缺과 面腫에 언급된 中府는 병증 자체로는 특성을 살피기 어려웠으나 經穴의 주치증상이 열성 질환과 관련이 있다.

足太陰脾經의 경우 隱白, 大都, 太白, 公孫, 商丘가 언급되었다. 이 경혈들의 주요 병증을 살펴보면 隱白은 모두 衄血증상에 활용되어 脾不統血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 판단된다. 大都는 目眩에 활용되었으며, 太白은 寒熱과 身熱에 활용되었고, 商丘도 熱症에 활용되어 모두 상부 熱症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公孫은 面腫에 활용되어 脾臟 기능과 관련이 있는 증상에 활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手少陰心經의 경우 少衝, 陰郄, 通里, 靈道, 少海,

青靈이 언급되었다. 이 경혈들의 주요 병증을 살펴보면 少衝은 熱症에 활용되었으며, 陰郄는 衄血증상, 通里와 靈道는 頭眩이나 頭痛, 暴瘡, 口噤 등의 증상, 少海와 青靈은 頭痛과 目黃 증상에 활용되어 心熱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足少陰腎經의 경우 涌泉, 然谷, 太谿, 照海, 復溜, 陰谷이 언급되었다. 이 경혈들의 주요 병증을 살펴보면 涌泉은 目眩과 頭痛에 주로 활용되었고, 然谷과 太谿는 출혈과 舌腫에 활용되었으며, 照海는 目赤과 目痛의 증상에 활용되었고, 復溜는 目眩과 鼻痛에 활용되었으며, 陰谷은 舌縱에 활용되어 熱症이나 腎臟 기능이상과 관련이 있는 증상에 활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手厥陰心包經의 경우 中衝, 勞宮, 大陵, 內關, 間使, 曲澤, 天池가 언급되었다. 이 경혈들의 주요 병증을 살펴보면 中衝은 熱로 인한 頭痛과 舌強에 활용되었고, 勞宮은 熱症과 관련이 있는 出血, 目黃에 활용되었으며, 大陵은 出血, 目黃과 熱로 인한 頭痛에 활용되었고, 內關과 間使는 目眩, 目赤, 面赤 등 熱症에 활용되었으며, 曲澤도 口乾과 煩渴 등 熱症에 활용되었고, 天池는 頭痛에 활용되어 모두 心包熱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足厥陰肝經의 경우 曲泉이 언급되었다. 曲泉은 目眩, 衄血, 頭眩에 활용되어 肝熱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頭面部와 유주상 관련이 없는 경락에 소속된 원위혈들은 대부분 熱症과 관련이 있었으며, 이러한 열성 증상은 心熱, 心包熱, 肝熱이나 장기능 실조로 인해 나타나는 병증들과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IV. 결론

『자생경』에서 두면부 병증치료에 언급된 경혈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두면부 병증 치료시 아시혈에 해당하는 근위혈뿐만 아니라 원위혈도 다양하게 언급되었다. 특히 열성 병증의 경우 근위혈보다 원위혈의 언급빈도가 높았는데, 이를 통해 병인 위주의 치료시에는

원위취혈을 활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두면부 병증 치료시 병증부위 소속 경락의 혈위 뿐만 아니라 유주상 무관한 경락의 혈위 또한 다양하게 활용하였다.

2-1. 근위혈의 경우 부위별 소속 경락이 아니라도 담경, 삼초경, 독맥, 임맥 등이 자주 언급되었다. 이는 담경과 삼초경은 두면부에 경혈이 많이 분포되어 있고, 임·독맥은 두면부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2-2. 원위혈의 경우 부위별 소속 경락이 아니라도 臟이 연결되어 있는 手足陰經이 자주 활용되었다. 이는 熱症과 같이 臟기능 부조로 인해 발생한 질병들에 대해 비록 頭面部와 유주상 상관이 없는 경맥의 經穴이라 하더라도 병증을 회복하기 위해 선택한 경혈이라고 판단된다.

』의 수혈배열 비교연구. 한국의사학회지. 2019. 32(1).

6. 오준호. 계층적 군집분석(hierarchical clustering)을 통한 침구자생경(鍼灸資生經) 경혈 선택 요인 분석. 한의학연구소 논문집. 2014. 23(1).

7. 이장천 외 6인. 함대현, 이해정, 김승태. 『銅人腧穴鍼灸圖經』과 『鍼灸資生經』에 수록된 침구금기혈 연구. Korean Journal of Acupuncture. 2012. 29(1).2015.

8. 전국한의학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 경락경혈학 교재편찬위원회 저. 大學經絡經穴學總論. 대전. (도)종려나무.

Acknowledgement

이 논문은 2020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임 (2017R1D1A2B05031884)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Basic Science Research Program through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 fund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2017R1D1A2B05031884)

References

1. 金信根 編. 中國醫學大系 10, 鍼灸資生經. 서울. 麗江出版社. 1995.
2. 대한침구학회 교재편찬위원회 편저. 鍼灸學上. 과주. 集文堂. 2008.
3. 柳濟浩. 『鍼灸資生經』文獻研究. 山東. 山東中醫藥大學 國際教育學院 박사학위논문. 2017.
4. 이재동, 김남일. 중국 침뜸의학의 역사. 서울. 집문당. 1997.
<https://doi.org/10.15521/jkmh.2019.32.1.043>
5. 정상선, 엄동명. 『鍼灸資生經』과 『十四經發揮